

2005 오슬로 세계도서관정보대회를 다녀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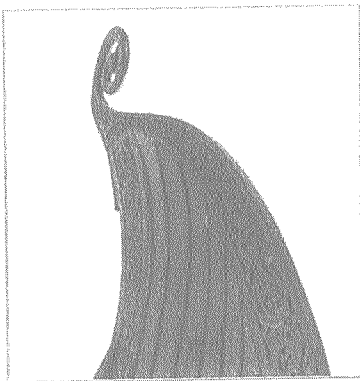
- 어린이·청소년분과를 중심으로 -



송영숙*

● 여는 말

어린이·청소년 분과중심의 회의 일정순으로 그 내용과 느낌을 서술함으로 2005오슬로세계도서관정보대회의 보고를 대신하려고 한다. 오슬로 대회를 돌아보는 것이 2006년 서울대회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의 제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바이킹의 나라인 노르웨이, 그래서 오슬로대회의 주제도 "Libraries - A voyage of discovery"이다. 오슬로대회 로고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비그도이의 바이킹박물관(Culture Evening이 진행되었던 민속박물관의 바로 옆에 위치함)을 둘러 보고 깨달았다. 옛날 바이킹들이 타던 배의 머리모양이었다.



〈바이킹박물관에 전시된 배의 뱃머리〉

8월12일(금) 오전10시경 오슬로 공항에 도착, 직행열차를 타고 오슬로 중앙역에 도착하니 개찰구 앞에 오슬로대회 자원봉사자가 대기하여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오슬로 스펙트럼은 아직 우리를 위해 열려있지 않았다. 오후 1시가 지나야 등록이 가능하다고 했다. 무거운 짐을 끌고 숙소로 먼저 둘러 좀 쉬다가, 다시 오후 2시30분경에 오슬로 스펙트럼에 가서 등록을 했다. 노르웨이의 물가는 상당히 높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숙소로 원룸아파트를 빌렸는데 회의장소와는 좀 떨어져 있는 곳이다. 중앙역까지 걸어서 30분 정도라길래 시내구경도 할 겸 차비를 절약할 겸 걸었다니 거의 한 시간이 걸린다. 집으로 돌아올 때도 걸었다. 이렇게 해서 오슬로의 첫날, 하루가 다 가버렸다.

* 우리 협회 어린이·청소년봉사위원회 위원장, checkgori@hotmail.com

◎ 컨퍼런스 일정이 시작되다

◎ 8월13일(토, 8:30~11:20)

어린이·청소년 분과 상임위원회가 아침 8시30분에 있었다. 지각하지 않으려고 신경을 쓰고 트램(지상전차)을 탔지만 길이 익숙지않아 몇 번을 물어 회의장소(Folkets Hus)에 도착하니 일년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이 거의 모두 모여있다. 서로 개인적인 인사와 조그만 선물들을 주고 받기도 하며 위원장의 개회인사와 함께 회의가 시작되었다.

7명의 위원이 임기가 끝나고 8명의 새로운 위원이 들어와 18명과 명예고문, 협력회원을 포함해서 20명, 그 중 2명이 불참이었다. 임기가 올해로 끝나는 회원 7명과 읍저버 몇 명이 함께 하여 약 30명 정도의 인원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돌아가며 한마디씩 인사를 하는 것과 동시에 인원점명을 하고, 앞으로 일할 새로운 회장단을 뽑았다. 회장과 서기를 그대로 유임시키고, 뉴스레터 편집을 맡던 위원이 임기가 끝나서 그 뒤를 이을 편집담당을 선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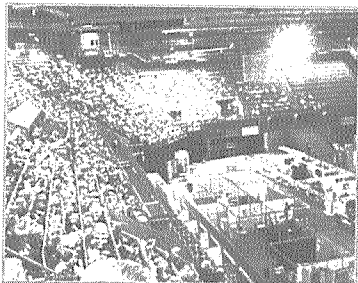
2004년 부에노스아이레스 회의, 2005년 3월에 로마에서 있었던 준비회의에서 있었던 일 등을 보고하고, 오슬로 컨퍼런스의 계획과 어린이분과의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8월13일(토)과 19일(금)에 있을 두 번의 상임위원회가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여 별도의 추가회의를 위한 시간을 배정받았다는 것을 공지하고, 회장의 보고, 회계보고, 편집장의 보고를 받았다.

추가회의와 마지막회의에서 나머지 안건을 다루기로 하고 위원회를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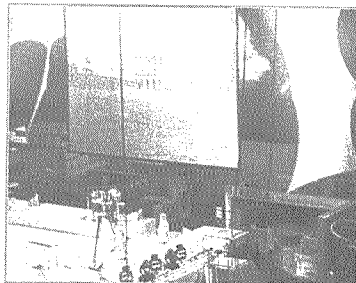
◎ 8월14일(일, 10:45~12:45)

10시45분 개막식, 그러나 국왕의 참석으로 30분 전인 10시15분까지 입장하라는 전갈을 받았으나 숙소가 멀고 대중교통이용이 서둘러 10시20분이 되어서야 도착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스펙트럼 좌석을 채우고 있었다. 계단식 좌석이 너무 가팔라서 앞으로 고꾸라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될 정도이다. 국왕이 입장하고 순서가 하나하나 진행되었다. 노르웨이 문화부장관, IFLA회장, 오슬로대회 조직위원장, 오슬로시장의 연설과 사이사이에 시를 낭송하듯 스토리텔링을 하듯 사회를 보는 사회자, 하프연주, 시크리트 가든의 연주 등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오후에는 전시회 개최 및 파티(16:00~18:00)가 있었다.



〈개막식의 청중〉



〈개막식 스크린에 보이는 황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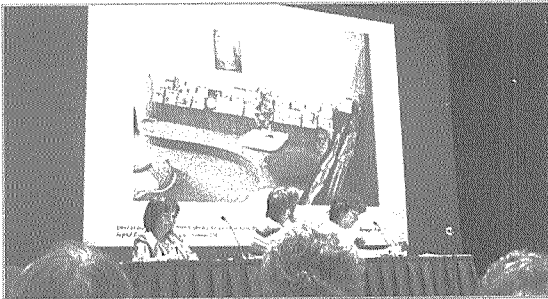
〈전시장〉

◎ 8월15일(월, 10:45~12:45)

어린이·청소년 분과의 컨퍼런스는 공공도서관과 함께 하였다. 주제는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과거, 현재, 미래의 여행'으로 노르웨이 공공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과 미래의 전략, 어린이도서관봉사의 사례, 어린이·청소년분과의 50주년 기념: 어린이분과의 역사와 미래의 계획이 발표되었다.

50주년 기념의 작은 전시회 및 파티를 회의실 밖에서 가졌다. 전시할 물건들을 각자 준비해 오기로 했었다. 우리 그림책 몇 점과 그에 관련된 것들과 우리문화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여 전시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동이 나 버렸다. 보여주지만 하려고 전시했던 것까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어가 버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

이어서 특별 프로그램으로 오슬로 공공도서관 본관(Deichmanske bibliotek)의 어린이·청소년실을 방문하였다. 오슬로 공공도서관 어린이·청소년실장의 초청이었다. 노르웨이 그림책 전시회("국경을 넘는 노르웨이 그림책")를 하는 중이었고, 시낭송 등이 있었다.



〈어린이도서관봉사의 사례발표〉



〈오슬로 공공도서관〉

◎ 추가 상임위원회(14:00~16:00)

스타방가(Stavanger)에서 있었던 프리 컨퍼런스에 대한 정보교환,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2005년 후보작과 2006년의 준비 등), 어린이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어린이 도서관봉사를 위한 가이드라인, 청소년 봉사의 지침, 어린이·청소년 분과의 역사와 홍보리플렛, IFLANET에 실릴 어린이도서관사례, 어린이와 정보이용교육에 대한 제안(Reading Section과의 협동), 파트너십 등이 어린이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재정문제, 2005년부터 2006년의 전략 계획, 어린이분과의 출간자료(리플렛, 웹페이지, SCL Newsletter) 등을 의논하였다. 특히 2006년 서울대회를 앞두고 독서분과(Reading Section)와 합동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조직하여 세부적인 진행사항을 의논하기로 했다. 워킹그룹 회의는 16일(화) 오전에 독서분과와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 8월16일(화, 10:00~)

워킹그룹회의는 독서분과에서 3명, 어린이분과에서 5명이 레디슨 플라자 호텔 로비에서 모였고, 아주 진지하게 2006년 서울대회에 대하여 의논하였다. 서울대회의 주제인 "도서관 : 지식정보사회의 역동적인 엔진"에도 어울리는, 그리고 세계의 도서관인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나눌 수 있는 컨퍼런스가 되기를 원했다. '다이나믹'이란 말에 신경을 쓰는 것 같다. 유아들에 대한 도서관봉사, 정보이용교육, 스토리텔링 등 초점을 맞추어가

다가 “가족 독서”으로 주제를 정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 도시 한 책 읽기’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등을 이야기하고, 도서관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야기찬치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이나믹’한 우리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야기한마당이 “가족 독서”도 잘 어울리는 어린이도서관봉사 프로그램이라는 의견을 제안했고, 스토리텔링 역시 어린이봉사 프로그램으로나 가족독서를 유도하는 방법이라는데 의견일치를 본 듯하다. 여태껏 그래왔던 대로 대회를 주최하는 나라에서 먼저 발표하기로 하여, 첫 번째 발표자로 내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것을 소개하는 것으로 세션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어린이분과와 독서분과가 함께 하는 세션으로 계획을 세우고, 나는 포스터세션을 위해 12시 조금 전에 먼저 자리를 뒀다. 회의 결과를 나중에 들으니, 세션 중에 딱딱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이야기시간을 계획했으니 준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나의 대답은 “It’s my pleasure.”였다.

● 포스터 세션(12:00~14:00)

포스터 프리젠테이션-The Beautiful Granny Project: “Silver” Storytellers Workshop(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교육)이 내가 발표한 포스터이다. 15일(월) 오후에 포스터를 준비해서 붙여놓고, 16일(화)에는 두 시간동안 포스터 앞에 지키고 서 있어야 했다. 포스터 프리젠테이션이란 이런 것이구나. 엄청 많은 사람이 몰려든다. 능숙치 않은 영어로 열심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한다.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표했다.

서울시 여성발전기금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이 프로그램은 노년설계를 위한 것이었고, 노년을 어떻게 잘 보낼까에 대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더 많은 흥미를 유발시킨 듯 하다. 나이가 지긋한 분들은 거의 발길을 머물러 들여다 본다. 나이가 들어서도 무엇인가 해야 하고,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인가 보다.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교육의 내용은 대강 다음과 같다.

- 목적 : - 옛날이야기, 그림책, 동화를 매개로 하여 할머니와 어린이가 만나는 기회를 제공한다.
- 이러한 만남은 신, 구세대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며, 일하는 엄마들의 빈자리를 할머니가 대신할 수 있다.
-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어린이들과 가족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환영받는 할머니의 역할로 화목한 가정의 매개체가 된다.
-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습으로 아름다운 할머니상을 구현하고, 이러한 즐겁고 아름다운 노년활동의 설계로 가정이나 사회에서 새로운 역할의 기회를 가진다.
- 도서관,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등의 사회교육기관에서 스토리텔러로서 자원봉사의 기회를 유도한다.

- 진행과정 : - 다양한 방법의 이야기 실습 : 스토리텔링, read aloud, sing a song, 동시낭송 등
- 동화작가와 만남의 기회 및 이야기듣기
- 도서관의 이야기시간, 독서캠프에 참가하여 어린이들과의 만남을 유도

- 평가결과 : - 할머니들이 즐거움으로 열심히 참여, 훌륭한 스토리텔러가 되었다.
- 인생의 새로운 길을 설계하고 적극적이 되었다.
- 도서관에서는 어린이봉사를 위한 많은 후원자를 갖게 되었다.
- 50여 단체중 the best award를 받았고, 2005년에도 지원금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포스터 세션〉

〈국립도서관장의 방문〉

〈열심히 포스터를 들여다보 관람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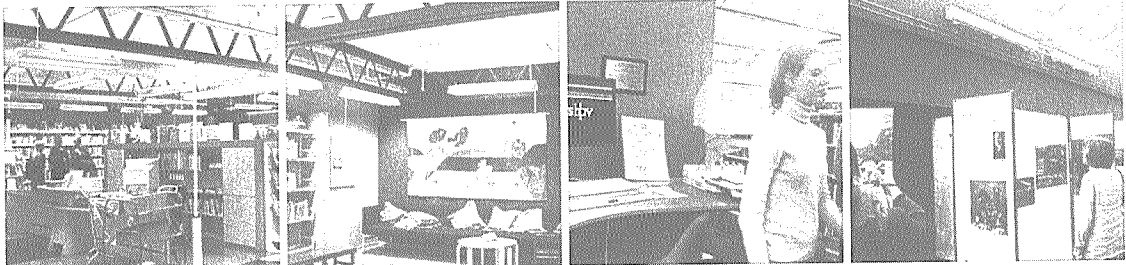
〈Key Raaseroka 회장의 방문〉

학교도서관 세션(School Libraries and Resources Centers, 16:00~18:00)에 참가했다가 문화행사(Cultural Evening)에 참여하기 위해 도서관협회에서 준비한 버스를 타고 민속박물관으로 향했다.

◎ 8월17일(수, 8:30~11:00)

어린이분과 상임위원을 위한 어린이도서관 특별방문이 있었다.

래디슨 플라자 호텔 앞에서 아침 8시에 만나서 오슬로 공공도서관 톨쇼브분관인 어린이도서관(Children's Library at Torshov, the branch of Oslo Public Library)을 견학하였다. 이 도서관은 오슬로 중심가에서 북쪽으로 몇 마일 떨어진 사게네(Sagene)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인구가 약 30,000명 정도이며 원래는 노동자들이 주로 사는 지역이었으나 산업체나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현재는 노동자였던 노인들,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이민온 사람, 학생과 젊은이, 고학력의 샐러리맨과 높은 수준의 사회혜택을 받는 사람 등, 다양한 주민들이 살고 있다. 이 지역의 특성은 장년층의 주민보다 노년층과 젊은 여성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도서관은 1996년부터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서비스를 시작했다. 예를 들면 이민은 젊은 소녀들을 위한 문학그룹과 인터넷그룹, 여성이민자들을 위한 친교그룹과 같은 이민인구에게 능력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우선했다. 지역정보서비스와 노인대학 등도 이 도서관의 프로젝트 중의 하나이다. 지난 몇 년 동안, '가까이 있는 도서관(The Accessible Library)' 프로젝트-물리적, 정신적인 장애와도 상관없이 누구든지 도서관을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가 이 도서관의 주된 전략이다. 장애인들의 접근이 용이한 도서관 시설, 시각장애를 가지고도 인터넷 검색이 가능한 컴퓨터와 이를 다룰 수 있는 교육의 제공, 휠체어로 그대로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책상 등 누구에게든지 열려있는 도서관이었다. 이 도서관에서도 역시 '독립 100주년 기념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1905년 스웨덴으로부터 독립한 지 100주년이 되는 2005년, 이를 기념하는 전시회가 도서관 등의 많은 공공장소에서 열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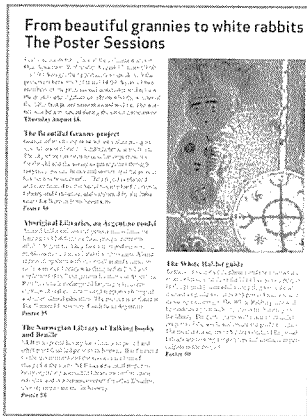
〈오슬로 공공도서관, 톨쇼브 분관〉

〈어린이실 유아코너〉

〈장애인 컴퓨터〉

〈독립100주년 기념 전시회〉

● 포스터 프리젠테이션(12:00~14:00)



(IFLA Express, 6호)

오늘로 공공도서관 톨쇼브분관에서 돌아와, 오늘로 스펙트럼 입구에서 IFLA Express(6호, 8월17일)에 내가 발표한 포스터의 기사가 실린 것을 발견했다. 어린이 청소년 분과 회원들과 만나는 우리나라 참가자들이 모두 기뻐해 주어서, 나도 기분이 참 좋았다. IFLA 회장인 Kay Raseroka도 방문해주었다.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던 셈이고 나에게는 좋은 경험이 되었다. 이들 간의 포스터 세션을 무사히 마치고 오후 3시경 쯤 포스터를 걷었다.

한국도서관협회 주관으로 열린 주노르웨이 대사관의 리셉션(17:00~19:00)에서 우리나라의 WLIC대회 참가자들과 노르웨이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과 함께 우리의 가락과 춤사위를 즐기며, 새롭게 동포애를 느꼈다. 대사관의 리셉션 후에 Oslo Public Library 리셉션(19:00~21:00)으로 갔다. 15일(월) 어린이 청소년 분과회의를 마치고 갔을 때에, 미처 보지 못했던 노르웨이 그림책 전시회를 찬찬히 다시 훑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8월18일(목)

폐막식(14:15~15:50)이 있는 후, 공공도서관분과 위원장의 초대로 뵈림공공도서관에서 저녁 리셉션(Evening Reception- Boerum Public Library)이 있었다. 저녁 6시에 래디슨 플라자 호텔 앞에 대기하고 있던 버스를 타고 30분 정도 걸려서 간 뵈림이란 동네는 아주 부유해 보였다. 도서관도 넉넉해 보이고 넓찍했다. 이곳에도 역시 독립100주년 기념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도서관이 문을 닫은 저녁시간이고 도서관업무 자체에 대한 설명이 목적이 아니라 자세한 것은 볼 수 없었지만 느낌은 참 편안한 도서관이다. 재정적인 것을 비롯해서 모든 면에 여유스러움이 보이는 도서관이었다.

비그도이가 바다라 보이는 해안가를 따라서 간 뵈림공공도서관은, 시내에서는 꽤 멀리 떨어진 동네에 있다. 높은 건물이라고는 없고, 학교도 도서관도 땅에 딱 붙어 있듯이 단층건물이다. 도서관 앞 넓은 정원에는 책조각상이 인상적이다. 폐막식을 끝내고 온터라 폐막식에서의 2006 서울대회를 홍보하기 위한 우리의 광고춤 공연, 한국소개 영상물에 대해 상당한 흥미를 보였다. 한국에서 온 내게 예의상 말을 거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 8월19일(금, 8:00~10:50)

마지막 일정으로 어린이 청소년 분과 상임위원회가 있었다. 폐막식에서 어린이분과의 뉴스레터가 최우수편 집상을 받고, 포스터 프리젠테이션에서도 상을 받아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2006년의 서울대회의 계획을 비롯하여, 중간회의를 어디에서 할 것인가 등에 대해 토의했다. 서울 컨퍼런스의 메인세션의 진행은 워킹그룹에서 토의한 것을 기초로 세부계획을 짜되 이메일 등으로 서로 더 자세히 의논하기로 하고, 준비회의를 싱가포르에서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립도서관이 새 건물로 이전하고 준비회의 장소로 제안을 해 왔을 뿐 아니라 동서양의 중간지점으로 유럽이나 아시아의 각 지역에서 모이기에 공평하다는 의견이었다. 2007년 더반 컨퍼런스의 대략적인 계획도 언급을 하긴 했으나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 아직 서울대회까지 이메일이라는 아

주 편리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의논할 시간도 남아있고, 모두들 귀국하기에 마음들이 바쁘다. 나도 짐을 꾸려서 모두 가지고 회의에 참석했다가 회의가 끝나자마자 그대로 공항으로 직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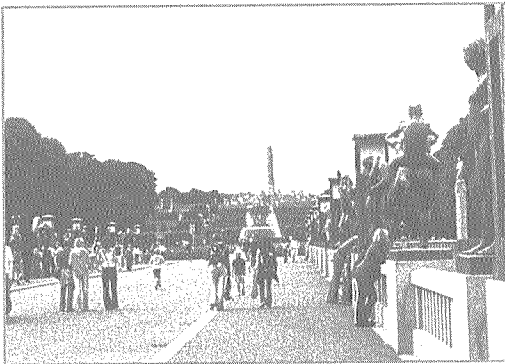
우리 집에서는 빨리 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아 2005년 오슬로대회를 마치고 귀국하는 길이 매우 급했다.

○ 그 밖에 보고 들은 문화

회의가 없는 시간을 쪼개어 잠잠이 시내관광을 했다. 더러는 몇몇이 모여서, 아니면 혼자서 이곳저곳을 관람하였다. 황궁, 시청앞, 비그도이의 바이킹박물관과 민속박물관을 돌아보기도 하고, 몽크미술관에서는 무언가 저 깊은 마음 속에서 분출되어 나오는 슬픔이랄까 외로움이랄까 설명키 어려운 심리상태가 되어 몽크의 그림을 감상하기도 하였다. 몽크의 '비전'이란 그림 앞에서는 '비전이 없음'을 오히려 보았고, 제목은 잊었지만 가슴에서 흘러내리는 피로 인간의 고통을 표현한 그림 앞에서는 나도 그런 처절한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였다. 몽크의 대표작인 '절규'가 도난될뻔한 사건이 있어서 검색도 심하게 했고, 그래서 몽크미술관에는 오리지널 '절규'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 다른 버전(판화 등)의 '절규'만 있었다.

스키박물관, 스키점프대를 관람했다. 시내 어딘가를 가 볼 시간이 허락할듯한 전날 밤에는 열심히 교통편과 소요시간을 예습했다가 찾아가곤 했는데, 스키점프대도 그렇게 해서 가 보았다. 다른 곳보다 늦게까지 오픈하고 있어서 시간을 내기가 쉬웠다. 스키점프대의 꼭대기까지 계단으로 올라가니 오슬로 시청 앞으로부터 비그도이까지의 해변이 다 내려다 보인다. 해발 몇 미터나 될까?

비겔란공원을 찾았다. 입구의 다리난간을 따라 서있는 무수한 조각품부터 탄성을 자아내게 하더니, 너른 잔디, 푸른 나무, 분수,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조각되어져 있는 인간의 군상이 우리 마음을 사로 잡는다. 처음에 갔을 때 시간에 쫓겨 충분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후에 다시 가 보았다. 9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워낙 낮이 길어 흰하게 느낄 정도로 땅거미질 무렵의 푸른시간이었다.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커다란 둥근 달이 무언가 부족한 마음을 채워준다, 저런 멋진 달을 보았으니 좋은 일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 어두워질수록 조각되어진 인간들의 군상이 그로테스크하게 보이기 시작할 때 비겔란 조각공원을 나왔다.



〈비겔란 조각공원〉

국립미술관은 정말 가 볼만한 곳이다. WLIC대회에 참가한 각국의 사람들이 그룹별로 안내를 받으며 들어왔다. 그 사람들은 돈을 내고 관광안내를 받고 있을 터였다. 이 그룹 저 그룹의 설명을 필요한대로 엿들으며, 나는 시간을 아껴 관람을 마쳤다. 몽크의 '절규'가 이곳에 있었고, 몽크와 동시대의 화가이며 서로 교류를 했다는 고흐, 고강의 그림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다. 그림들이 시대별로 전시되어 있었고, 태고적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노르웨이가 존재하는 당위성과 역사를 보여주도록 전시하고 있는 것 같았다.

노르웨이가 가장 사랑하는 관광상품인 'Norway in Nutshell'은 베르겐(Bergen)을 중심으로 마치 호두 속에 들어있는 알맹이처럼, 노르웨이의 피오르드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관광코스이다. 짧은 여정으로 노르웨이의 자연경관과 피오르드를 경험하기에 가장 적합한 선택인 것 같다. 기차타고 배타고 버스타면서 경험한 자연은, 빙하가 흘러내리면서 만들어내는 예술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폭포, 피오르드를 형성하고 있는 넓고 많은 호수, 나무들……, 노르웨이의 자연이 아름다운 것은 산과 물, 나무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우러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그의 고향이기도 한 베르겐의 깔끔한 환경과 어시장, 입센이 세웠다는 극장 앞에 서있는 입센의 조각상을 보면서도 예술가가 그냥 생겨난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 맺는 말

몇 년째 WLIC대회에 참가하면서 느끼는 것은 어린이·청소년 분과의 멤버들은 상당히 열심이라는 것이다. 대회기간동안 그들의 활동을 따라가기가 벅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정도이다. 2006년 서울대회에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과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목표설정을 뚜렷이 하고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다. 우리의 좋은 것도 보여 주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그들의 조언을 통해 채워져야 한다.

어린이·청소년분과의 상임위원들은 어린이들이 가까이 하고 즐길 수 있는 작은 도서관도 보고 싶어 하고, 한창 꽃을 피우기 시작한 한국의 어린이책(특히 그림책)과 그 어린이책을 만들어내는 출판사에도 관심이 많다. 겉으로만 보여지는 봉사자 아닌, 작아도 마음에 다가가는 도서관봉사를 보고 싶어 한다.

국립 어린이·청소년 도서관이 2006년 5월에 개관될 예정인데, 2006년 그들이 서울에 왔을 때, 어린이분과 상임위원들의 특별초대방문을 계획하고,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의 한 방향으로 '이야기잔치 한마당'과 '우리 그림책 전시회'를 열어, 우리의 진면목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